

#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 (1)

1.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(단장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, 현 KOICA 이사)은 6. 21(수) OECD 및 프랑스 외교부를 방문, OECD 개발협력국 Hans E. Lundgren ODA(공적 개발원조) 심사 평가 과장 및 프랑스 외교부 Serge Tomasi 개발정책부국장 등 평가 부서관계자 등과 면담하고, OECD 및 프랑스의 ODA평가시스템에 대해 파악, 조사한 바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아래 보고함

## 가. OECD개발협력국 심사평가과장 면담 및 오찬

### 1) ODA 평가 시스템

- 박강호 심의관은 우리나라의 ODA 증액과 효율적이고 통합된 심사 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 등 우리의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함.
- Lundgren 과장은 최근 원조공여국들의 ODA 증대와 함께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

고 있으며 평가 관련 조직과 인원이 확대, 증가하는 추세임을 설명하면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도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희망함.

- 특히 동 과장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성공적인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빈곤국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평가시스템 분야 또한 한국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다른 ODA공여국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.

### 2) ODA평가체제관련 최근추세(OECD 측 설명)

- 성과중심 평가제도 정착
- 다자기구와 NGO의 원조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두
- 다자원조 공여국과 공동평가 증가
- 평가에 NGO와 수원국 등 제 3자의 참여 확대

- 평가결과 환류(feed-back)강화
- 평가범위 확대(프로젝트 → 프로그램, 원조 전략)
- 평가부서의 독립성 강화
- 평가결과의 공개

### 3) ODA 평가시스템구축시 고려사항

- Lundgren 과장은 그동안 원조 공여국들의 경험을 감안,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제언
  - 공정하고 유능한 컨설턴트의 활용이 중요하며(덴마크 경우는 다른 외국국적을 가진 독립기관을 이용), 이를 위해 컨설턴트 시장의 활성화가 긴요
  - 평가결과는 공개(disclosure)되도록 해야 함.
  -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과 자원(staffs and resources)을 확보 해야하며, Asian Development Bank, World Bank 등과의 공동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함

### 4) 평가결과의 보고시스템

- 평가관련 경영진과 사업운영부서 및 사업평가부서간 유기적 대화와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함. DAC측은 평가보고서가 ODA 시행기관의 장뿐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 되어야한다고 강조

### 5) 외교부와 원조이행기관 간의 역할 분담

- 외교부는 주제별 분야별 종합적, 정책적인 평가 담당
  - 정책의 일관성,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여부 등
- 원조이행기관은 개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

### 6) 우리나라의 DAC가입관련

- DAC 가입심사 시 평가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평가에 있어 OECD DAC 평가원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임
- Lundgren 과장은 한국은 이미 ODA 규모 등 여러 면에서 DAC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DAC 가입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선도적인 ODA 공여국이 되기 위해서 한국이 평가 체제를 포함 효율적인 ODA 체제를 구축하도록 언급함.

## 나. 프랑스 외교부 ODA평가관계자 면담

### 1) 프랑스의 ODA 체제

- 프랑스의 ODA담당기관은 외교부, 재경부, 프랑스 개발청(AFD) 세 기관으로 다른 공여국에 비해 다원적인 체제를 유지.
  - AFD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원조자금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원조프로그램도 수행

- 상기 기관 원조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부처 간 조정을 위해 1998년부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“부처간 국제협력 및 개발 위원회(CICID)”를 설치.운용

## 2) ODA 평가체제

- 상기 3개 기관이 각각 별도의 평가부서를 두고 평가 실시
- 외교부의 경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 등 우선연대국가 (Priority Zone of Solidarity)에 대한 원조 중 가버넌스, 민주화지원, 치안, 사법 분야 프로그램 및 국가별 평가 실시
- WFP, EU집행위원회, 등 다자기구와의 공동평가 및 영국 등 다른 EU 국가와의 협력
  - 프랑스는 2005년 벨기에에 자국의 ODA 평가체제를 심사해주도록 요청
- 외교부의 경우 평가관련 정규직원은 6명으로 주로 외부전문가 컨설턴트들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(ODA예산 중 평가관련 부문은 약 3%)
  - 1년 평균 분야별 및 국가별 평가건수는 15개 정도

## 3) 평가방식

- 외교부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, 재정부와 AFD는 비공개
- 주로 사후 평가 실시
- 정량, 정성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나 외교부는 정성적 지표의 비중이 높음.

## 4) 평가결과 활용

- 외교부 평가결과는 공개, 그러나 AFD 및 재정부 평가결과는 비공개하며 내부에서만 활용
- 평가보고서를 관계부처 및 부서, 현지에 배포하며, 평가 결과는 ODA 정책수립단계, 사업발굴 형성단계 등에 반영
- 외교부 평가결과는 책자,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

## 5) 우리나라의 DAC 가입관련

- Serge Tomasi 개발정책 부국장은 왜 한국이 아직 DAC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문의한 바, 우리측은 우리의 ODA수준제고,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 문제, ODA 관련 조직 정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
-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현 DAC회원국 중 대다수가 한국이 충족하고자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

## 2. 시사점

- OECD는 평가원칙, 기준 등 규범 제정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바, 우리도 우선 평가원칙, 기준 등 규범 제정이 필요하며, 동 규범을 KOICA 정관 또는 시행지침에 조속히 명문화해야 할 것임.
-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과 예산, 인원 확충이 필요하며, 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인

력을 양성하는 한편, 제한적인 인력사정을 감안, 컨설턴트 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ODA 평가결과의 공개는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, 향후 우리 외교부의 ODA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국회 및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.
- DAC 가입 전이라도 OECD가 주최하는 ODA평가관련 각종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적극 참여하여 선진 평가제도와 기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.
- 선진 원조기관이나 개발관련 다자간 국제

기구와의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, 선진평가기법 공유 및 우리의 ODA 평가 수준 제고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함.

- 유·무상 원조실시 부처 및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, 프랑스의 평가시스템은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무상원조관련 외교부가 국별, 분야별 평가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공표하는 체제는 우리로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[자료: 주스웨덴대사관]